

광산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강한 공론화’ 나서

송정권·수완권 주민설명회 개최 내달부터 동별 설명회 사례 견학

광주 광산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사실을 기초로 건강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선다.

광산구는 지난 2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청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입지 후보지 선정에 ‘원점화’하고,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추진’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재공모에 나섰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그동안 소모적 ‘찬반 논쟁’이 반복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광산구는 시민이 광역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객관적 사실, 필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판단,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송정권, 수완권에서 차례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총 35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광주시의 친환경·주민 친화적 시설 건립

계획 △국내외 사례 △시설 가동에 따른 인체·환경오염 영향 △인근 주민 지원 혜택(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질의응답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조만간 광주시는 상세한 재공모 일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자원회수시설 대응 특별업무팀(TF팀)을 구성, 입지후보지 선정 과정보다 전략적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주민설명회에 이어 8월부터는 동별 사업 설명회, 선진견학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별도로 설명회나 사례 견학을 희망하

는 마을, 주민, 단체 등 요청에도 적극 대응해 시민이 제대로 된 사실과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광산에 시설을 짓자, 말자를 떠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동네별 설명회 등을 이어가며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왜 필요한지 알리고 그동안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며 사실에 입각한 주장, 사실에 입각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9월까지 빛의 음성 체험 행사 동구,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광주 동구는 지난달 개관한 ‘빛의 음성’을 중심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이리 오너라, 빛의 음성’ 행사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빛의 음성은 광주 동구의 야간관광 구축 사업인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지난 6월 동부경찰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개관한 이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까지 미디어아트 연출 장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빛의 음성을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빛의 음성 상·하부 주요 공간을 활용해 과거 광주음성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시민들과 외지인들에게 새로운 야간경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버나·죽방울 놀이·투호·칠교 등 전통 놀이와 광주음성 지도를 목판으로 새긴 탁본 체험 등이 있다. 광주음성 퀴즈 풀이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주어진다.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포토존을 찾는 MZ세대를 위해 빛의 음성에서 찍은 사진을 SNS 개인 계정에 게시하면 즉석 사진을 출력해 주는 사진찍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인 광주음성을 빛으로 재탄생시킨 빛의 음성은 야간관광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음성을 더 널리 알리고 빛의 음성이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여름철 특별 방역 ‘총력’ 서구, 방역기동반 20개 운영

광주 서구는 최근 긴 장마와 무더위로 모기 등 위생 해충이 급증함에 따라 특별 방역소독에 나선다. 서구는 지난해 대비 모기 개체수가 7배 이상 증가해 공공시설 및 주택 등 주민 생활공간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보건소 및 18개 동 방역기동반을 구성해 관내 경로당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소규모 단독주택에 가정용 모기 유충구제제 3000개를 배부했다.

또 광주천변 및 도시공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연·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서구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맨발로(路)와 도시공원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추가 설치했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소모가 없고 4시간 정도 해충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모기, 진드기 등 해충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예방하면서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북구민상 후보자 공모 내달 19일까지 5개 부문

광주 북구가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북구민을 발굴하고자 구민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 구민상은 지역 발전과 살기 좋은 사회 조성에 헌신한 모범 주민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상해 총 72명의 모범 주민에게 수여됐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구민상 공모는 △지역경제 △지역 사회 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 장애인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북구는 부문별 수상자 각 1명을 선정해 총 5명에게 구민상을 수여할 방침이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광주 북구에 거주한 주민(지역경제 및 문화예술체육 부분은 거주지 무관 북구서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주민) 가운데 각 시상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주민이다.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주민은 △지역민 30인 이상 연대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추천 방법을 통해 오는 8월19일까지 북구 행정지원과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윤준영 기자

21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 광산구, 임곡동·동곡동

광주 광산구는 임곡동·동곡동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21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변화를 도모하는 주민자치 기구다.

광산구는 지난 2013년 운남동이 광주 최초 주민자치회를 띤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우산동, 2018년 첨단2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선도 해왔다.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 확산을 본격화, 올해로 21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무리했다.

임곡동 주민자치회는 40명, 동곡동 주민자치회는 28명으로 각각 구성, 앞으로 마을 현안 및 의제 발굴,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구는 26일 염주체육관 펜싱훈련장에서 펜린이(성인반) 펜싱교실 종강식을 가졌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펜싱교실, 강영미·김재원 국가대표 응원

서구 펜린이 펜싱교실 종강식

“태극전사들을 착한 서구가 응원합니다.”

광주 서구가 펜싱 국가대표로 파리에 립픽에 출전한 서구청 소속 강영미·김재원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서구는 지난 26일 오후 염주체육관 펜싱훈련장에서 펜린이(성인반) 펜싱교실 종강식을 가졌다.

서구는 국가대표 등 서구청 펜싱팀의 재능기부로 성인과 어린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반 등 연령대별 펜싱교실을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대

상 펜싱교실이 한 달 간의 수업을 마무리했다.

펜싱교실 참가자들은 “각종 대회에서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펜싱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서구청 펜싱팀 덕분에 꿈을 이뤘다”며 “우리의 스승인 강영미·김재원 선수 모두 파리에 립픽에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의 자랑인 태극전사들이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했던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펜싱교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펜싱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

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영미 선수는 에페 ‘맴넨니’로 이번 파리에 립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에 도전한다. 강 선수는 지난해 열린 아시아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4연패를 달성했고,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재원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유일한 에페 선수이며 빠른 스피드와 손 기술로 아시아 랭킹 2위의 기록을 갖고 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부터 서구청 펜싱팀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남구 ‘소상공인 희망대출’ 확대 지원 나선다

정책자금 12억원 연평균 금리 5.5% 경영 안정 도모 이자 차액 4% 지원

광주 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금융권과 협력해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내 소재 세마을금고와 희망대출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추가 지원에 나선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대출 업무 협약식이 지난 25일 오후 3시 구청 열린 민원실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김병내 구청장과 관내 소재 무진·광남·서양·주월·월산 세마을금고 이사장 5명이 참석했다.

남구와 관내 세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희망대출 업무 협약을 맺고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대출 규모를 2억원 늘려 관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12억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남구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연평균 금리의 3/4 가량을 남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해보다 구비 투입 규모를 늘려 올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 보전금 48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은 저금리로 내년 7월까지 해당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희망대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업소별 지원 금액은 500~1000만원이며, 연평균 금리는 5.5% 수준으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남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 4%를 지급하기 때문에 1.5% 수준의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기 기자